



인플레이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홍보배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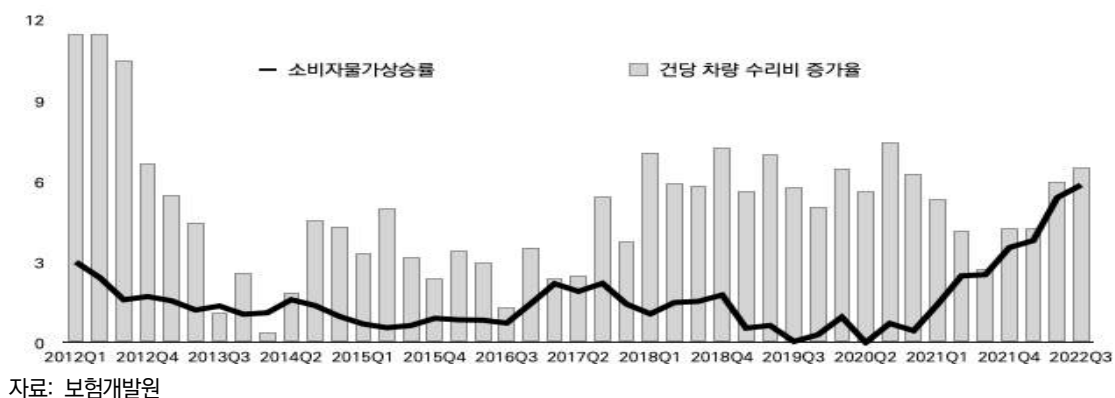
요약

차량 수리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데,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확대되면서 차량 수리비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음. 차량 수리비는 공임, 도장비, 부품비로 구분되는데 부품비와는 다르게, 공임과 도장비에는 차량 수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본비용, 정비업체의 목표 이익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는 특성이 있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차량 수리비 증가세 확대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차량 수리비 증가율은 2012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데,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차량 수리비 증가율도 확대되고 있음
 - 2012년 1/4분기부터 2022년 3/4분기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건당 차량 수리비 증가율이 낮았던 시기는 2013년 3/4분기와 2014년 2/4분기에 그침
 - 보험산업이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인 클레임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보여주는 위험보다 보험산업이 노출되는 위험이 더 클 수 있음¹⁾
 - 2021년 3/4분기 건당 차량 수리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8%였으나 2022년 3/4분기에는 6.5%로 두 배 이상 높아졌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에서 5.9%로 상승함(그림 1) 참조)

〈그림 1〉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건당 차량 수리비 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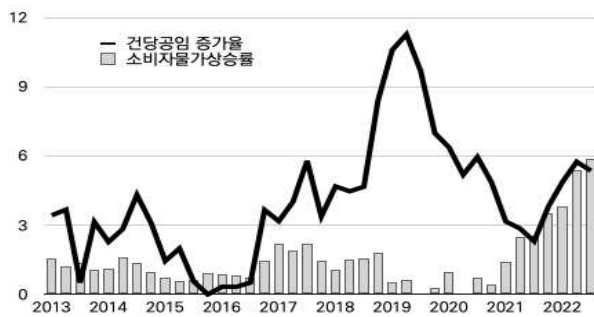
1) 윤성훈(2022), 「인플레이션과 보험산업」, 『CEO Brief』, 제2022-2호, 보험연구원

○ 차량 수리비는 공임, 도장비, 부품비로 구성되는데 2021년 이후에는 각 항목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음

- 차량 수리비는 2013년 1/4분기 건당 110만 원에서 2022년 3/4분기 161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공임, 부품비, 도장비의 비중은 기간 평균 29%, 58%, 13% 수준임
- 도장비와 공임 상승률은 동행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1년 이후 도장비와 부품비의 상승세가 확대됨(〈그림 2〉, 〈그림 3〉 참조)²⁾
 - 2021년 3/4분기에서 2022년 3/4분기 증가율의 경우 공임은 2.3%에서 5.4%, 부품비는 2.8%에서 7.8%, 도장비는 4.5%에서 6.4%로 확대됨
 - 부품비 증가율은 2013년 이후 11%를 넘지 않았지만, 공임 증가율은 2018년 최저임금 상승(16.4%)으로 2019년 전후 12%까지 높아짐
 - 도장비의 60% 내외가 공임매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건비 등 공임의 비중이 부품비 다음으로 큼

〈그림 2〉 수리 건당 공임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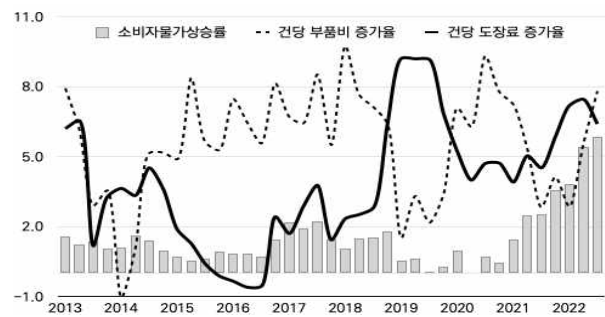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그림 3〉 부품비와 도장료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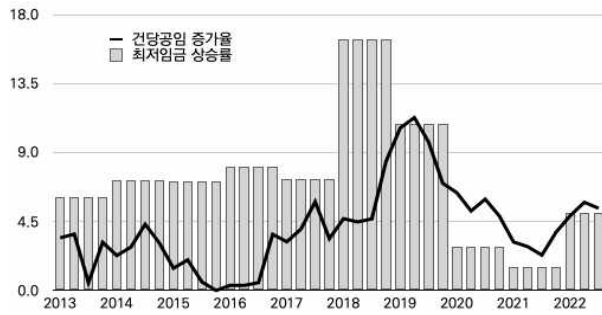
○ 공임은 정비업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자본비용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음

- 인플레이션은 최저임금 인상과 정비업계의 임금 상승 압력, 그리고 자본비용(감가상각 등)을 상승시켜 공임과 도장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정비업체의 자본비용은 정비원 임금과 공임의 격차로 볼 수 있는데, 산업의 감가상각률과 정의 관계를 보임
 - 2021년 손해보험 대형 4개사 평균 시간당 공임은 30,807원이고 자동차 정비원 시간당 임금은 20,900원으로 추산됨

2)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 따르면, 도장비의 60.6%가 공임으로 인식되기 때문임; 보험정비협의회(2018. 7. 10), 『표준공임산정보고서』

〈그림 4〉 최저임금 상승률과 건당 공임 증가율

(단위: %)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그림 5〉 감가상각률, 공임과 정비원 임금 격차

(단위: %, 원)



주: 보험 시간당 공임은 대형 4개 손해보험회사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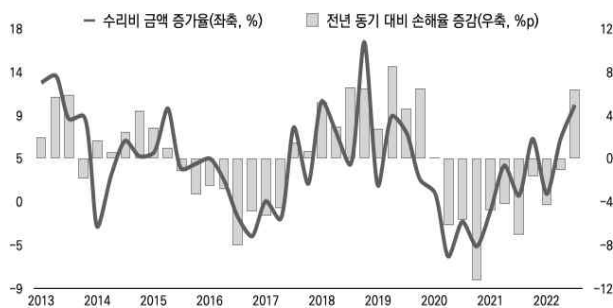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손해보험협회

○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한 차량 수리비 상승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폭을 확대시킬 수 있음

- 차량 수리비는 2021년 기준으로 6조 5,720억 원(대물담보 3조 8,466억 원, 자차 2조 7,254억 원)으로 전체 손해액 15조 2천억 원의 43%를 차지함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리 건당 도장비, 공임 증가는 차량 수리비 증가세 확대와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부품비 증가율은 2021년 이후 확대되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제한적일 수 있음(〈그림 3〉 참조)
 - 건당 도장료와 공임 증가율은 인플레이션 확대로 인해 상승할 수 있는데, 특히 공임에는 최저임금과 정비원 임금이 반영되어 있어 상승세가 확대될 수 있음(〈그림 4〉, 〈그림 5〉 참조)
- 2023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2~3년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차량 수리비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대인 청구 건당 손해액과 물가상승률 사이에는 뚜렷한 관계가 보이지 않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청구 금액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명목 청구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 손해율 상승폭이 더 커질 우려가 있음(〈그림 7〉 참조)
 -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고 손해율과 보험료 조정의 관계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음

〈그림 6〉 차량 수리비 증가율과 전년 동기 대비 손해율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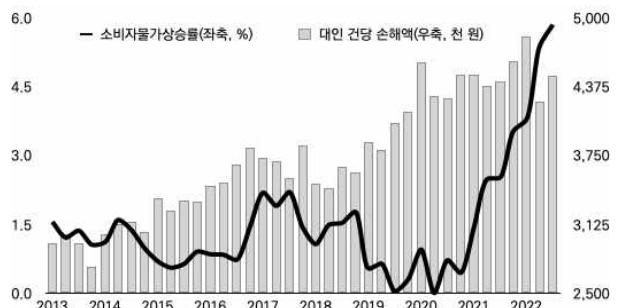
(단위: %, %p)



자료: 보험개발원

〈그림 7〉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대인 건당 손해액

(단위: %, 천 원)



자료: 보험개발원